



한국에서의 에이즈 민간단체의 역할

AIDS관련 민간단체가 숫적으로 많다고 하여 인위적으로 정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각자 특이성을 갖춘 다수의 단체가 형성되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때에 AIDS사업은 보다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많은 단체가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서로 중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 영 오 / 강원대학교 의과대학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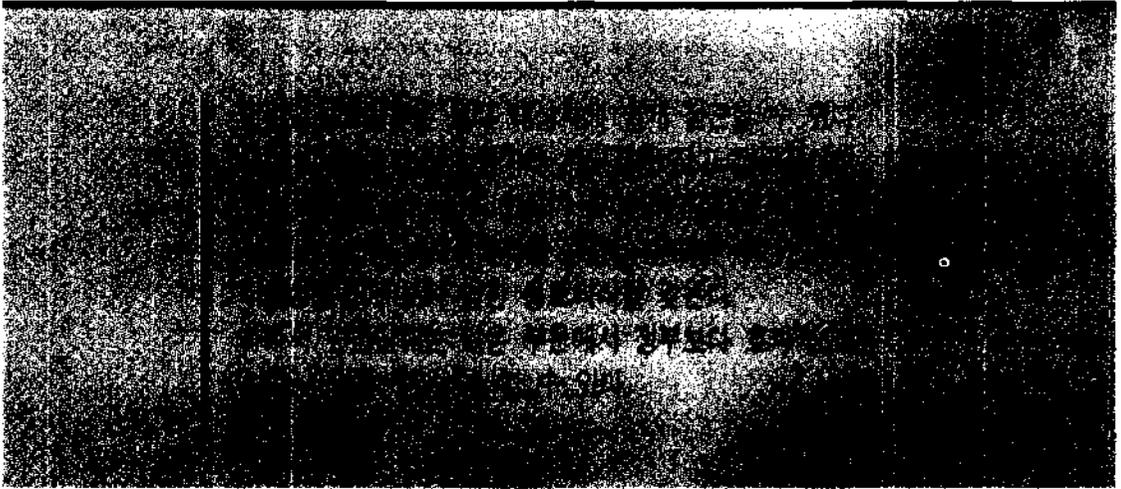
필자는 과거에 정부의 AIDS관련부서에서 근무한 바 있어 민간단체의 역할에 관하여 글을 쓰기에 적합성 여부로 한동안 주저하였으나 어떻게든 그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 일종의 만용을 내었다.

AIDS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다른 어느 전염병보다 그 피해가 크며 여러면에서 특이성을 갖는다. 감염자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HIV에 감염된 이후 평균하여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발병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나 감염자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의 친지들이 입는 경제적 손실, 수입의 감소, 사회적 소외, 수치감 등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AIDS로 인한 피해는 삶을 영위해 가는 동안 부딪힐 수 있는 그 어떤 일 보다 더한 불행을 초래한다. 따라서 AIDS는 반드시 예방되어야 할 질병

병일 뿐만이 아니라 한 번 감염된 이후에는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여 그 피해를 극소화해야 한다.

AIDS사업을 위해서는……

AIDS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다른 질병과 다른 몇 가지 특색을 갖는다. AIDS사업을 위해서는 최신의 정보에 근거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철저한 보안유지가 필요하며 인권을 보호해야 하고 완벽에 가까운 정도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수백만의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어떤 과정에서도 한 건의 서류상 오류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 AIDS업무이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AIDS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정부와 민간단체간에 적절한 역할분담과 상호간의 협조, 보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민간단체의 역할을 논하기 전에 우선 AIDS분야에서 정부가 해야 할 부분을 설명하고자 한다. AIDS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감염자나 환자를 적절히 돌보기 위하여서 정부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관련법규를 제정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책수립과 집행에서 대부분의 외국에 비하여 과잉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철저하게 대응해 왔다. (전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하여 HIV검사를 실시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조기에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국내에서 HIV감염자가 수명에 불과할 때에 국내의 모든 수혈 혈액과 혈액제제에 대하여 HIV시험을 수행하도록 조치하였다. 현재로서는 당연한 조치이나 그 당시로서는 결단하기 어려운 과감한 조치이었다. 이러한 시기 적절한 정책수립과 집행은 정부가 계속 맡아야 할 부문이다. 나아가 정부는 공공성이나 공권력이 요구되는 AIDS사업은 계속 맡아야 한다. AIDS 관련 제품에 대한 국가검정, 진단시약의 품질관리, 특수하게 요구되는 검사 등은 그 성격상 정부가 담당할 분야이다. 민간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우면서 상업성이 없는 대규모의 기초조사의 성격을 갖는 연구도 정부가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민간단체는 정부와는 다른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 감염자나 환자는 담당공무원보다는 다른 동료감염자나 환자 혹은 자원봉사자에게 보

다 신뢰를 보낸다. 따라서 민간단체요원들은 보다 대상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사업에 동기와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이며 헌신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갖춘 많은 사람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고 회원상호간에 보다 강한 동료의식을 갖는다. 따라서 민간단체는 많은 부문에서 정부보다 효과적으로 AIDS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

민간단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민간단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일은 홍보이다. 홍보에는 TV나 라디오등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가 다른 어느 홍보방법보다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AIDS의 날과 같은 행사가 홍보의 가장 호기이며 이와 같이 방송의 관심을 끌만한 프로그램은 그 이외에도 다변화되어야 한다. 저명한 학자가 참가하는 국제심포지움의 개최나 일반인에게 인기있는 연예인 혹은 체육인이 참가하는 바자회 혹은 불우 감염자 돕기 운동 같은 행사도 방송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IDS 홍보는 반복적이어야 보다 효과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중에 확인된 Human immunodeficiency virus(HIV) 감염자 및 AIDS환자수는 1996년의 수 보다 20% 정도 증가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감염자의 증가에

도 불구하고 근래에 방송매체에 의한 AIDS홍보는 전보다 회수가 줄어들고 보다 단편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효과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방송매체가 AIDS관련 보도를 소홀히 할 때 일반국민은 AIDS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 AIDS관련 방송이 나간 다음 얼마 동안은性病진료소를 찾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AIDS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 질 정도로 방송홍보의 영향력은 크다. 방송을 통한 홍보 이외에 소책자, 팸플릿 등을 통한 홍보도 있으며 이외에 스티커등 여러 방법에 의한 홍보가 현재도 행해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민간단체가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홍보이외에 민간단체는 학생, 직장인, 군인 등 여러 집단에 대한 AIDS교육을 담당주관할 수 있다. 민간단체는 이들에 대한 교육대상자를 선택하고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주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민간단체 요원이 반드시 직접적으로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AIDS교육을 위한 강사는 특별히 교육받고 관계분야를 전공한 자격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AIDS분야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보다 깊은 의학적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외국 교과서의 사실이 우리나라에서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AIDS의 발병양상은 외국과 상이하다. 적합하지 않은 강사는 잘못된 지식을 전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교육자에게 과잉조치나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외에 감염자나 환자를 상담하고 돌봐주는 일도 민간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IV감염자나 AIDS환자에게는 솔직히 대화할 수 있는 동료들(peer group)이 필요하다. AIDS환자를 돌봐주는 데에는 투철한 사명감을 갖춘 자원자들이 가장 바람직할 수 있다. 민간단체는 모금운동의 전개를 통하여 모아진 기금으로 불우한 AIDS환자를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사업에서는 선의의 HIV감염자를 우선적으로 도울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IDS환자를 위한 돕기 운동을 전개할 때에 일반인은 윤락인 감염자나, 동성애자 혹은 마약중독자를 연상하게 되며 이러한 사실이 모금운동을 보다 어렵게 할 수가 있다. 감

염자의 부인과 같은 선의의 감염자를 구별하여 보다 우선적으로 돕는 것이 모금운동에서 보다 설득력을 갖을 것이며 감염의 원인이 본인의 불법적인 행위에서 온 것과는 구별하는 것이 보다 강한 호응을 얻을 수 있다.

AIDS 연구회와 같은 단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나 AIDS 연구자들로 구성된 일종의 민간단체인 AIDS연구회와 같은 단체가 생겨 AIDS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민간단체의 역할이다. 세계의 다수 국가에서 AIDS관련 학술단체가 구성되어 연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아시아에서는 매 2년마다 아시아 태평양 AIDS회의(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다. 이미 인도,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개최한 바 있다. 1999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제5회 아시아 AIDS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아시아올림픽등 다른 분야와 비교해 볼 때 이미 늦은 감이 있어 수년 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AIDS회의가 개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민간단체가 해야 할 역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투철한 사명감을 갖춘 회원의 증가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회원의 증가가 있을 때에 민간단체는 재정적으로 보다 자립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IDS관련 민간단체가 숫적으로 많다고 하여 인위적으로 정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각자 특이성을 갖춘 다수의 단체가 형성되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때에 AIDS사업은 보다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많은 단체가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서로 중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이들 단체들이 참가하는 하나의 연합체 같은 기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구는 단체 그 자체라기 보다 연합체의 성격을 갖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세기 인류의 최대의 난적인 AIDS를 예방하고 다스리는 데에 우리 민간단체가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힘이라 생각된다. **A**